

Thomas Wolfe의 *You Can't Go Home Again*에 나타난 美國人의 性格

梁 永 洙

< 目 次 >

- | | |
|-----------------------------------|------------------------------------|
| I. 序論：變하는 故鄉의 意味 | 3. Webber와 美國 國民의 未來志向
的인 過去 脫皮 |
| II. 本論 | III. 結論：發展에의 意志와 安定에의 鄉
愁 |
| 1. Webber의 故鄉喪失과 美國 國民
의 移住 歷史 | |
| 2. Webber의 旅行癖과 美國 國民의
非定着性 | |

I. 序 論：變하는 故鄉의 意味

Thomas Wolfe (1900~1938)는 1920 년대에 그의 문학 활동을 시작하였지만 그 당시의 미국 문단을 풍미하던 Lost Generation 계통의 작가들과는 그 문학적 특성을 달리하고 있다. 기존의 문화 질서에 실망하여 좌절감과 허무감과 순간적인 향락에 빠져 있던 Lost Generation의 작가들에게 대해서는 T.Wolfe 자신이 배척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거니와 1) 그는 현재의 향락보다는 미래의 희망을 위해 고투하고, 허무주의적인 방황보다는 自己脫皮的인 부단한 발전을 추구하는 가운데에 그의 문학 세계를 구축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그는 비록 자신의 문학적 인생 遍歷에 대한 自敘傳的인 묘사를 거의 사실 그대로 그의 작품 속에 투영했지만, 작품 속에 그려진 그 자신의 모습은 극히 대국적인 견지에서 미국의 實相 捕捉을 위한 하나의 小宇宙 또는 縮圖로서의 구실을 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는 자신의 작품들은 자서전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면서도 發展一路의 미국 역사를 상징적으로 표현한다고 믿고 있었다. M.Silver와 S. Bradley도 지적하고 있다시피, Whitman이 그의 시집 *Leaves of Grass*를 통해서 이룩하려고

1) Robert E. Spiller, *Literary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4th Ed. (New York : Macmilan Publishing Co., Inc. 1974) p. 1309.

했던 발전적인 미국 역사의 形象化를, T. Wolfe 는 소설의 형태로써 이룩하려고 했던 것이다.²⁾

그의 대표적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대 다시는 故郷에 못 가리〉 *You Can't Go Home Again*. 에 나타나 있는 고향의 의미는 이러한 미국적인 발전 역사를 이해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어 준다. 이 작품 속에서의 고향은 과거에 잃어 버린 것과 어린 시절의 화려했던 꿈의 상징이지만, 누구나 다 돌아가고 싶어 하면서도 실지로 돌아갈 수 없는 고향을 비애와 허무의 심정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욱 큰 자기 세계 모색의 起點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데에 그의 힘찬 문학정신의 眞面目이 있다 하겠다.

이 작품의 주인공 George Webber 의 성격은, Wolfe 자신의 이와 같은 자기확대적인 성격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고, 그것은 또한 미국의 장래 발전에 대한 희망을 胚胎하는 원천이 되고 있기도 하다. Webber 의 성격상 특징은 사물을 발전적 변화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데에 있다. 그리하여 따뜻한 인정과 아름다운 꿈의 보금자리였던 고향이 虛榮과 自己欺瞞의 亂舞場으로 화하는 것을 보고서 그는 고향 사람들에게 품었던 환상을 깨닫기 포기한다. 그리고 어린 시절 선망과 동경의 마음으로 그려 보던 도시 상류사회의 허망한 實相을 확인하고서는 자기의 진정한 작가 정신이 썩어 갈 것을 우려하여 화려한 사교계의 유혹을 단호히 물리친다. 또한 그는 오랫동안 인류 문화의 精髓의 本產地로서의 독일을 여행한 결과, 그 나라의 전체주의적이고 호전주의적인 文化 破壞 作態에 실망한 나머지 신흥 조국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에 대하여 새로운 기대를 걸게 된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잃어 버린 과거 (Wolfe 에게 있어서는 고향도 의미하지만)에 대하여 그리움, 연민, 회한 등의 강렬한 감정을 품게 마련이고, 이러한 감정은 현재 상황의 평가와 미래의 방향 설정에 대하여 긍정적으로나 부정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특히 오늘날의 한국인들처럼 급격한 변천 과정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현재 또는 미래에 관련해서 과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문제가 현실적인 막중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과거 또는 고향이 갖는 미래에 대한 제약성을 과감하게 극복·탈피하려는 George Webber 의 적극적인 開拓精神 (이것은 곧 미국적인 개척정신의 한 표현이지만)은 우리 한국인들의 발전적인 過去脫皮 努力에 대하여 示唆해 주는 바가 많으리라고 본다. 물론 현대 문명의 嚮導者로서의 미국 역사의 첨단적인 성격과 한국적인 역사 발전의 주변적인 성격과는 상이한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나, 그러한 상이점은 부분적인 것에 불과하다. 인생과 역사의 속성을 변화 속에서 찾으려 하고 그 변화를 발전과 희망의 관점에서 해석하려는 T. Wolfe 의 용기 있는 감투정신은 시대와 사회를 초월한 보편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 Mildred Silver, *A Brief History of American Literature*, (Zentsuji, Kagawa-ken, Japan: Shikoku Christian College Press, 1966) p. 301.

Sculley Bradley et al., *The American Tradition in Literature* Vol. II (New York W.W. Norton and Co., Inc., 1974) p. 1359~60.

Ⅱ. 本 論

1. Webber의 故郷喪失과 미국 국민의 移住 歷史

*You Can't Go Home Again*의 주인공 Webber는 Libya Hill이라는 시골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다음 작가로서의 성공을 꿈꾸면서 대학에 입학할 때에 New York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자기의 성장 배경이었던 시골 고향에 대하여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부모 대신에 자기를 키워준 이모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고향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만난 고향 사람들은 그가 오랫동안 떠나 있었던 고향의 의미를 다시금 일깨워 준다. 그는 어렸을 때 품었던 화려한 성공의 꿈을 얼마나 이루었는가 하는 문제를 고향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알아 보려고 할 정도로 고향의 의미를 크게 생각하고 있었다. 오랫동안의 타향 생활 가운데에서도 그는 고향에 대하여 磁石과도 같은 강한引力을 느끼고 있었고 고향 마을에서의 추억은 아직도 생생하게 그의 마음 속에 남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고향에 대해 회의를 싹트기 시작하는 것은 고향으로 가는 열차 속에서부터였다. 거기서 만난 고향 사람들은 부동산 투기열에 눈이 어두어 옛날의 따스하고 소박했던 시골 인정을 잃어 버리고 있었고 그런 사람들의 눈에 비칠, 대학 강사라는 자신의 처지가 초라해 보였기 때문에 그는 고향에 찾아 온 것을 벌써부터 후회하고 있었다.³⁾ 고향 사람들은 그들이 딛고 서 있는 땅을 생활의 터전으로가 아니라 蓄財의 일개 방편으로밖에 생각하지 못했다. 땅을 산 지 며칠만에 팔아 넘기기 일쑤였고 그 며칠 동안에 땅 값이 치솟은 것에 대하여 환호를 올렸지만 그렇게 해서 늘어난 재산은 다만 서류상 명목상의 것에 불과했다. 市長은 주민들의 열광하는 지역 발전 욕망에 편승하여 무모한 도시개발 계획을 추진하면서 과도한 은행 부채를 얻어 쓴 결과 나중에 갑작스러운 경제공황을 맞이하여 은행의 파산과 시장 자신의 자살이라는 비극을 가져올 씨앗이 되고 있었다. 모든 사물을 금전으로 환산하여 바라봄으로써 옛날의 순박한 인간미를 잃어 가는 고향 사람들에 대하여 Webber는 쓰디쓴 배신감과 疎遠感을 느낀다. 또한 옛날의 아름다웠던 자연 경관은 발전이라는 미명아래 무참히 파괴되고 있었고, 주민들의 의식주 생활은 몰취미한 획일화와 걸치레로만 치달고 있었으니 그것은 모두 그가 그리던 고향과는 너무나 판이한 모습이었다. 이제 더구나 자기를 길러 주었던 Maw 이모가 죽어버림으로써 그의 고향

3) Thomas Wolfe, *You Can't Go Home Again* (New York: Dell Publishing Co., Inc., 1965) p.p. 98~99.

※ 以下page의 표시는 이 책 속의 것을 말함.

상실감은 더욱 확고해 졌다. Maw이모의 장례식을 끝내고 고향을 떠나는 날 자기의 옛날 애인 Margaret과 함께 이모의 무덤에 찾아가서 그 위에 국화 꽃다발을 바치고 돌아서는 장면은 그에게 있어서 정신 발달의 큰 斷層을 경험하는 일종의 儀式과도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p. 142)

그러나 Webber가 그의 고향 Libya Hill과 사실상의 최종적인 결별을 고하는 것은 그의 최초의 작품인 *Home to Our Mountains*에 대한 고향 사람들의 격렬한 거부반응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는 이 작품에서 고향사람들이 안고 있는 물질주의적이고 비인도적인 문제점들을 가차 없이 파헤쳤는데 이 때문에 그는 그들로부터 예상밖으로 큰 반발과 원망을 사게 되었고, 그 결과 그는 고향에서부터 직접 간접으로 날아드는 빗발치는 비난의 화살을 피하여 생활하게 됨으로써 그의 고향 상실은 이제 확고한 사실이 되어버린 것이다. (p. 309, p. 352)

자기 마음의 의지처로 삼던 고향에서부터의 극심한 반발은 Webber를 고독과 자기연민의 비참한 심경으로 몰아넣었으며, 이러한 낙망의 수렁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기방어의 필요상 그가 예술가라는 핏박받는 순교자의 입장에서 자기 위치를 정당화시키려고 했음은 충분히 이해될 만한 심리 변화라 하겠다. 즉, 참다운 예술가는 원래부터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知的 審美的인 정신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예술의 진실성과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반 대중에게서부터 소외되고 고립되는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자기변호적인 결론이었다. 예술가를 일반 대중과는 다른 특별한 부류의 사람으로 보려는 이와같은 유형화가 과연 타당한 藝術觀이나 하는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많겠지만, 쓰라린 고향 상실감과 허무감에서부터 탈피하여 새로운 자기 세계 확대를 모색하는 정신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자기 正當化的인 성찰이 불가피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But he had got himself primed into a mood of martyrdom. ... Then, when the first accusing letters came, he had been overwhelmed and filled with shame and humility and guilt over the pain he had caused. But as time went on and the accusations became more vicious and envenomed, he had wanted to strike back and defend himself. When he saw there was no way to do that, he had grown bitter. And finally he had sunk into this morass of self-pity.

George began to talk now about the artist. The artist, it seemed, was a kind of fabulous, rare, and special creature who lived on beauty and truth, and had thoughts so subtle that the average man could comprehend them no more than a mongrel could understand the moon he bayed at. The artist, therefore, could achieve his art only through a constant state of flight into some magic wood, some province of enchantment.

Anybody who was a real artist, he said, was doomed to be an outcast from society. His inevitable fate was to be driven out by the tribe. (pp.352-3)

아끼던 고향과의 단절을 경험했을 때의 Webber가 언제까지나 허무감과 자기연민의 늪에 빠져 있지 않고 마침내 자기의 처지를 긍정적인 발전의 터전으로 승화시킬 수 있었다는 사실은 마치 미국 국민들이 겪었던 신대륙 개척의 역사와도 흡사하다 하겠다. 즉, 미국 국민들은 구대륙에서의 가난과 압제와 인습을 과감하게 탈출하여 새로운 역사 창조를 꿈꾸면서 희망의 땅 신대륙으로 이주했던 사람들로서, 그들에게 있어서도 과거 전통과의 단절이라는 그들의 역사적인 위치를 정당화시켜 주는 것은 오로지 값진 미래 역사의 창조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Webber의 입장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신세계 개척자들에게 있어서의 유럽 문명과 Webber에게 있어서의 고향은 모두 과거의 것이라는 점에서 같은 의미를 갖고 있었으며 兩者의 경우에 있어서 모두 과거의 의미를 부정하는 정당성의 근거를 값진 미래의 모색에다 두려고 했다는 점에서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兩者의 경우에 있어서 과거의 구속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꼭 같이 출가분한 자유를 의미하였지만 다른 한 편에 있어서는 무거운 부담을 의미하였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오랜 依支處를 잃어 버린 신대륙 移住者들이 새로운 발전의 기반을 쌓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막대한 고통과 노력을 지불해야만 했던 것처럼, Webber에게 있어서도 고향 사람들에 대한 결별 선언에서 오는 고통과 허무감을 이겨 내고 자기 능력에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는 오래고도 고통스러운 문학 수업 과정을 거쳐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미국 국민이나 Webber가 과거 또는 고향에 종속되기를 거부했다는 것이 과거의 의미가 갖는 긍정적인 측면을 무시했음을 뜻하지는 않는다. 현시점에서 과거를 탈피하려는 진취적인 정신력의 씨앗이 胚胎된 것은 과거였고, 과거의 아름다웠던 추억이 있기 때문에 미래 건설의 구상이 생겨 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과거 또는 고향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인간 생활의 산업화 복잡화 상업주의화에 부수되는 문제점을 갖지 않는다는 점에서 과거는 아름답고 순수하고 정서적인 반면에, 非人道的인 迷信의 타파와 민주적인 사회제도의 확립과 과학 기술에 의한 문화생활의 향상 등 현대 문명의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無知蒙昧하고 粗野하고 抑壓의이다. 그리하여 과거는 한 편에서는 더욱 인간적이고 다른 한 편에서는 더욱 非人間的인데 그 어느 측면이든 다시 되돌아 갈 수 없다는 점에서는 같다. 그러므로 Webber에게 있어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事實의인 命題는, 고향으로 돌아가서는 안된다는 規節的인 命題로 통하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변화한다는 것은 모든 살아 있는 것의 불가피한 속성이기 때문이다. 이 작품 속에서 고향이 함축하는 의미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게 서술하고 있는 다음 대목에서 <돌아갈 수 없다> (can't go back)는 부분을 <돌아가서는 안된다> (shouldn't go back)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놓는 것이 주인공의 입장을 더욱 생생하게 이해하는 길이 될지도 모르겠다.

You can't go back home to your family, back home to your childhood, back home to romantic love, back home to a young man's dreams of glory and of fame, back home to lyricism, to singing just for singing's sake, back to the ivory tower, back home to places in the country away from all the strife and conflict of the world, back home to the old forms and systems of things which once seemed everlasting but which are changing all the time — back home to the escapes of Time and Memory (p.637)

위에 인용된 부분은 대체로 과거의 것들을 더욱 인간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반하여 아래에 인용된 내용은 과거라는 것을 人間性 拘束의 측면에서 해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He[Webber] saw now that you can't go home again — not ever. There was no road back. Ended now for him, with the sharp and clean finality of the closing of a door, was the time when his dark roots, like those of a pot-bound plant, could be left to feed upon their own substance and nourish their own little self-absorbed designs. Henceforth they must spread outward — away from the hidden, secret, and unfathomed past that holds man's spirit prisoner — outward toward the rich and life-giving soil of a new freedom in the wide world of all humanity. And there came to him a vision of man's true home, beyond the ominous and cloud-engulfed horizon of the here and now, in the green and hopeful and still-virgin meadows of the future. (p.633)

Webber 및 미국 국민의 고향 상실에 대한 태도와 한국인의 그것과의 차이를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한다. 명절 때를 전후한 수많은 歸省客 행렬과, 타향에서 죽어서도 고향 땅에 돌아와 묻히기를 바라는 강한 歸巢性 등을 볼 때 우리는 한국인들이 고향에 대하여 부여하는 막중한 의미를 실감할 수가 있다. 고향에 대한 의미부여가 두 나라 국민들간에 크게 다르게 된 것은, 양 국민의 역사적 배경과 친족 개념 등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겠지만, <그대 다시는 고향에 가지 못하리>라는 李文烈의 同名 小說속에 있어서도 그 端的인 예를 볼 수 있다. 사라져 가는 고향의 아름다운 이미지를 영구히 보존하기 위해서 썼다는 이 소설에서는 고향이라는 것이 대체로 탈피와 극복의 대상이라기 보다는 찬미와 동경의 대상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인들에게 있어서는 故鄉喪失이라는 것이 역사 발전의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毅然하게 받아들여지는 반면에, 한국인에게 있어서는 과거와 고향에 대한 집착이 현실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해서까지 너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2. Webber의 旅行癖과 美國 國民의 非定着性

G. Webber는 일찌기 그의 문학적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시골의 고향을 떠나 뉴욕으로 옮겨 살았었지만, 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동안에도 그는 그의 문학적인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 여러곳으로 이주 또는 여행하는 기이할 정도의 방랑벽을 보여준다. 끊임없이 새로운 문제의식을 지니고 인간 사회의 全貌를 捕捉 把握하려는 그의 정력적인 탐구정신은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정신력이 침체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던 것이다. 창작 생활의 초기에 그는 어린 시절 선망과 동경의 대상이던 뉴욕 상류사회의 거점인 Park Avenue에 거주했었으나 그곳이 가지는 오만한 편협성 때문에 드디어 싫증을 느끼게 된다. 상류 사회가 갖기 쉬운 사치와 허영과 가식은 건전한 미국 사회 건설에서 기생충과도 같은 (like a parasite upon the sound body of America) (p.336) 저해 요소가 된다고 생각되었던 것이다. Park Avenue를 떠나서 그가 이주한 곳은 빈민가인 Brooklyn이었다. 이 곳에서 그는 가난과 고독과 회의 속에서 4년간을 보냈으나 문학 창작에 대한 그의 집념은 언제보다도 강한 힘을 보여 주었다. 사회에서 버림받은 무명의 빈민들이 묵묵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에서부터 인생의 근원적인 진실을 발견해 내고자 渾身의 情熱을 불태웠던 것이다.

All about him were the poor, the outcast, the neglected and forsaken people of America, and he was one of them. But life is strong, and year after year it went on around him in all its manifold complexity, rich with its unnoticed and unrecorded little happenings. He saw it all, he took it all hungrily as part of his experience, he recorded much of it, and in the end he squeezed it dry as he tried to extract its hidden meanings. (p.366)

그러나 Brooklyn의 빈민가에서 4년을 지내고 나자 Webber는 그곳에서 체험할 수 있는 인간 문제의 범위에 한계를 느낀 나머지 또다시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힌다. 한 곳에 碇泊했을 때의 고독과 발 가는 대로 훌훌 떠돌아 다니려는 방랑벽 사이를 오락가락 하는 것이 그의 타고 난 습성이었던 것이다.

During this period he had learned much, both about himself and about America, but now he was seized again with wanderlust. His life had always seemed to shift between the poles of anchored loneliness and foot-loose voyagings (p.464)

더구나 그는 그의 제 2의 발표작이 될 소설의 원고를 최종적으로 수정하고 정리하기 위해서

는 미국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서 心機一轉할 필요성을 느꼈다. 미국 사회처럼 혼란스럽고 번잡한 환경을 벗어나서 좀 더 차분하게 창작 문제에 전념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는 해외 여행의 목적지를 영국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그곳은 여러 세기 동안 쌓아 온 문화적인 전통의 힘이 있으므로 미국보다 훨씬 안정되고 고무적인 창작 분위기를 이룰 것 같았기 때문이다.

런던으로 이주하여 조그만 아파트 방에서 작품 완성에 몰두하는 동안 그는 이제까지와는 다른 방면의 세계를 경험하게 됨으로써 그의 여행의 의미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 수 있었다. 특히 영국 체류 기간 중에 만난 세 사람이, 인생을 보는 그의 안목을 넓혀 준다. 그의 아파트 방에 와서 잔 심부름을 해주는 파출부 Daisy Purvis는 자기희생적이면서도 폐쇄적인 영국인의 성격을 보여 주었고, 奇人 小說家 Mcharg 씨는 세속적인 名聲의 實相과 초인적인 창작 의욕을 보여 주었으며, 이 Mcharg 씨와 함께 찾아가서 만나 본 시골 벽지의 Reade 씨는 소박하고 牧歌的인 전원생활의 허위성을 보여 주었다. Webber는 Reade 씨의 생활방식 가운데에서, 도시의 소란을 벗어난 화평스러움과 안락함을 부러워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은둔생활의 非誠實性을 발견하게 되었다. 현대의 도시문명을 피하려 한다는 것은 결국 현대 문명의 엄연한 문제들과 정면으로 대결하려 하지 않는 비겁한 도망자의 소행이라고 생각되었던 것이다. 그러한 패배주의적이고 소극적인 은둔자들은 현대 문명의 非人間化 현상을 비난함으로써 자신의 도피 생활을 정당화하려 하지만 실상은 자신의 현실적인 패배를 糊塗하려는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 대목에서 보는 바와 같은 Webber의 反隱遁的인 태도에서부터 우리는, 미래의 적극적인 개혁을 위한 기반으로서의 현실 긍정에의 노력을 충분히 엿볼 수 있을 것이다.

George's host was in high spirits and told the most engaging stories about himself, his wife, and the good life they were making here in the isolated freedom of their rural retreat. He made it seem not only charming and attractive, full of wholesome country pleasures, but altogether desirable and enviable. It was an idyllic picture that he painted — such a picture of rugged independence, with its simple joys and solid comforts, as has at one time or another haunted the imagination of almost every man in the turmoil, confusion, and uncertainties of the complex world we live in. But as George listened to his host and felt the nostalgic attractiveness of the images that were unfolded before him, he also felt a disquieting sense of something else behind it all which never got into the picture, but which lent colorings of doubt and falsity to every part of it. For Reade, George began to see after a while, was one of those men who are unequal to the conditions of modern life, and who have accordingly retreated from the tough realities which they could not face. (p.546)

영국 여행을 끝내고 뉴욕으로 돌아온 George Webber는 그의 두 번째 작품을 완성하여 출판사로 넘긴 후, 문학 창작의 새로운 轉機를 찾아서 이번에는 독일로 여행하게 된다. 독일은 그

가 오래 전부터 동경해 오던 제 2의 정신적 고향으로서 그는 독일 국민들에게 대해서는 각별한 친근감과 애착심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그곳에 실지로 가서 본 결과는 그를 크게 실망시켰다. 그가 그토록 흠모하던 문화 발상지인 독일이 이제는 나치스의 탄압과 폭정에 시달리고 있었고, 때마침 세계 올림픽 경기를 주최하고 있던 독재 정권은 가공할 정도의 집단적인 조직력과 통제력을 과시하는 데에 狂奔하고 있었다. 독일에 대해 가졌던 기대감과 존경심을 완전히 배신당한 채 귀국 길에 오른 그는, 기차 속에서 목격했던 독일 비밀 경찰의 검열 장면과 유대인 체포 장면을 통해서, 개인 생활의 자유와 존엄성을 완전히 박탈당한 나치스 독일의 비극을 절실히 통감하게 된다. 독일 여행에서부터 그가 얻은 한 가지 중요한 소득은, 그의 조국 미국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었다. 독일에 대한 오랫동안의 애정과 동경심이 나치스에 의한 인간성 말살에의 경제침과 두려움으로 변한 지금에 와서, 미국의 변함없는 벽천 가능성에 대해서 그는 다시금 커다란 기대와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미국이라고 해서 기회 균등, 자유와 평등, 인간 존엄성의 확대 등 민주주의 이념이 완전히 실현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나마 지구상에서 마지막 희망을 걸어 볼 수 있는 곳이 미국 사회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던 것이다. (p. 609)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Webber의 自己擴大의인 여행력을 미국인의 非定着的인 성향의 한 표현으로 보자는 것이 本論考의 입장이다.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는 것을 기질적으로 싫어하고 停滯보다는 끊임없는 運動과 變化와 改善을 추구하는 非定着性(restlessness)이 미국인의 주요한 국민성을 이룬다는 말을 우리는 많이 듣고 있거니와,*) 이 작품에서도 그러한 운동 지향적인 성향을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곳은 여러 번 발견되고 있다.

다음 대목은, Webber가 이모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오래만에 고향을 찾아가는 기차 속에서의 심경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는 어디론가 이동하고 있는 상태, 즉 力動的인 變化의 과정 속에서 오히려 마음이 안정됨을 느낀다고 하고 있으며 그것은 일종의 미국적인 逆說이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고향의 존재는 멀리에서 그곳을 그리워하는 가운데에서 절실하게 의식되는 것이지 그곳에 도착하는 즉시 고향의 의미는 약화되는 것이라는 표현은, 어떻게든 움직여 나가는 변화와 운동 속에서만 삶의 의미를 만끽하게 되고 정지는 곧 죽음으로 통한다는 미국적인 非定着性을 잘 말해준다 하겠다.

4) Rod W. Horton은 *Backgrounds of American Literary Thought* (Ea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Inc., 1974)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The frontier was largely responsible for shaping not only our concepts of democracy and equality but even the characteristic American temperament, with its restlessness, its pragmatic approach to life, its impatience at any too-great refinements of culture, and above all its idealism. (p.142)

Perhaps this is our strange and haunting paradox here in America — that we are fixed and certain only when we are in movement. At any rate, that is how it seemed to young George Webber, who was never so assured of his purpose as when he was going somewhere on a train. And he never had the sense of home so much as when he felt that he was going there. It was only when he got there that his homelessness began (p.70)

미국인의 이와 같은 力動的 性向에 대한 묘사는 주인공 Webber 에게서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다. Webber 의 情婦의 남편인 정력적인 사업가 Mr. Jack 의 성격에 대한 다음과 같은 묘사도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는 끊임없는 모험과 자극을 통하여 새로운 쾌락과 흥분을 추구하는 현대 미국인의 사업가 기질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⁵⁾ 그리하여 그에게 있어서, 靜態的이고 固定된 생활의 틀은 왕성한 생명력의 표현을 억압하는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he progress of his career during the forty years since he first came to New York had been away from the quieter, more traditional, and, as it now seemed to him, duller forms of social and domestic life, to those forms which were more brilliant and gay, filled with the constant excitement of new pleasures and sensations and touched with a spice of uncertainty and menace ... In New York he had moved on from speed to speed and from height to height, keeping pace with all the most magnificent developments in the furious city that roared in constantly increasing crescendo about him. (p.186)

이와 같이 끊임없이 움직이는 가운데에 비로소 마음의 안정감을 얻는 미국인의 기질은 Webber 의 情婦 Esther 에게서도 엿볼 수 있다. Esther 가 Webber 와 함께 자주 타고 다니던 열차에서부터 차창 밖으로 보이는 창고 건물 안에는 언제나 하는 일 없이 창가에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모습은 분주하고 활동적인 Esther 의 눈에 그토록 기이하고 답답하게 보였던 것이다.

5) Carl N. Degler 는, 미국인들의 진취성과 모험심은 그들의 신대륙 이주 역사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부유한 사람이나 전통적인 가문을 가진 사람 혹은 태만한 사람은 故國에 남았고, 진취적이거나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水平線 너머로 유혹되었다. 따라서 미국인이란 유럽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모험심이 강한 사람이거나 또는 그들의 후손인 것이다.」

〈現代美國의 成立〉(Out of Out Past, The Forces That Shaped Modern America 를 李普斯外 二人이 번역, 一潮閣, 1982) p. 317.

Before him, ... in the broad window of the warehouse, a man sat at a desk and looked out into the street, in a posture that never changed. George saw him there whenever he glanced across, yet he never saw him do anything but look out of the window with a fixed, abstracted stare. ... Esther, having observed him there, pointed to him one day and said merrily: "There's our friend in the Distributing Corp again! What do you suppose he distributes? I've never seen him do anything! Have you noticed him — hah?". She cried early. "God! It's the strangest thing I ever saw!" She laughed richly, made a shrug of bewildered protest, and after a moment, said with serious wonder: "Isn't it queer? What do you suppose a man like that can do? What do you suppose he's thinking of? (p.p.56-7)

이러한 미국적인 非定着性에 관련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미국인의 成功第一主義的인 행복론이다. 미국인들은 무엇을 새로이 성취하는 보람 속에서만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사물을 어느 정도의 거리 밖에서 조용히 응시하면서 느낄 수 있는 觀照的 靜的인 행복은 생소하다는 것인데⁶⁾, 이와 같은 成就指向的인 행복론에 대한 서술을 다음 대목에서 찾아 볼 수 있다.

There is something good in the way people welcome success, or anything — no matter what — that is stamped with the markings of success. It is not an ugly thing, really. People love success because to most of them it means happiness, and whatever form it takes, it is the image of what they, in their heart's desire, would like to be. This is more true in America than anywhere else. People put this label on their heart because they have never had an image of another kind of happiness. (p.130)

여기에서 야기되는 문제가 欲求充足의 無限한 連鎖라는 현상이다. 즉, 욕구충족에서 오는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先行되어야 할 것이 강렬한 욕망인데, 만약에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욕망을 충족시킨 다음에 더 이상 충족시켜야 할 욕망이 없어져 버린다면 그것은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우선적인 조건을 갖추지 못한 셈이 된다. 그러므로 欲望不在의 불행을 방지하기

6) 현대 중국의 碩學인 林語堂은, 미국인들이 능률과 성취를 지나치게 중시하는 나머지 悠悠自適하는 생활의 즐거움을 망각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The three great American vices seem to be efficiency, punctuality and the desire for achievements and success. They are the things that make the Americas so unhappy and so nervous. They steal from them their inalienable right of loafing and cheat them of many a good, idle and beautiful afternoon. One must start out with a belief that there are no catastrophes in this world, and that, besides the noble art of getting things done, there is a nobler art of leaving things undone.

The Importance of Living (Seoul: Si-sa-yong-o-sa Publishers, 1981) p.p. 29~30.

위해서는 욕망을 새로이 창조해 내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현대적인 상업주의자들이 구상하는 창조적인 市場開拓의 기본 개념이 되고 있다.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상품을 後行的으로 생산 판매한다는 舊時代의 소박한 시장 개념을 버리고 소비자들에게 끝없이 새로운 욕망을 先行的으로 일깨워 줌으로써 무한한 수요를 창출해 내려는 이와 같은 非定着的인 욕구 충족의 논리를, 우리는 현대 문명의 最先頭 走者로서의 미국인들의 특성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며, 그것은 이 소설의 다음 대목에서 그 적절한 표현을 얻고 있다.

True, there had once been a time when the aspirations of the company had been more limited. That was when the founder of the institution had expressed his modest hopes by saying: "I'd like to see one of my machines in every store, shop, or business that needs one, and that can afford to pay for one." But the self-denying restrictions implicit in the founder's statement had long since become so out of date. ... "We've gone way beyond that!" he exclaimed with pardonable pride. "Why, if we waited nowadays to sell a machine to someone who *needs* one, we'd get nowhere. We don't wait until he needs one. If he says he's getting along all right without one, we make him buy one anyhow. We make him see the need. in other words, we *create* the need." (p.135)

한 곳에 정지되어 있기를 싫어하고 끊임없는 변화와 발전을 추구하려는 미국인의 특성은, 미국적인 사상의 주류를 이루는 實用主義 철학과 연결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실용주의 철학의 기본적인 관점에서는, 인간 경험의 구체적인 상황과 독립해서 존재하는 절대적이고 先驗的인 가치 기준을 否定하고, 모든 종류의 가치의 근원을 인간 생활의 문제 해결에 대한 효율성에서 찾으려 한다. 모든 시대와 장소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固定不變의 가치 기준이 부정되고 그때 그때의 경험적인 문제 상황에 따라서 판단의 眞僞가 判定된다는 가치相對主義가 미국인의 특성이라고 볼 때에 7), 이는 곧 인간 정신이 궁극적으로 歸屬해야 할 영원무궁한 <不變의 故郷>을 부정하려는 미국인의 力動的인 非定着性和 합치된다고 볼 수 있고, 이것은 또, 靜的인 정체보다는 動的인 변화를 추구하려는 미국적인 혁신주의로 통한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론적인 가치 상대주의에 있어서는, 인간적인 욕구 충족의 방향을 결정짓는 가치의 근원을 과거 속에서 종결짓지 않고 미래에 있을 끊임없는 문제 해결의 실천 과정에 위탁하게 된다. 우리는 여기에서 미국인의 力動的인 가치 창조의 성향을 未來指向的인 過去 脫皮의 면에서 살펴볼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7) 金鍾云 編, <美國人の 選択> (서울: 文學과 知性 社, 1982) p.p. 24~5.

3. Webber 와 미국 국민의 未來指向的인 過去 脫皮

Webber가 충격적인 고향 상실에 직면해서도 悲哀와 虛無感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過去와의 連繫性을 초월하여 미래의 자기 세계 개척에 희망을 걸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미래 지향적인 과거 탈피 성향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부단한 자기 확대 노력의 일부인 非定着的인 여행벽에서도 나타났지만 궁극적으로는 그의 문학 세계 구축을 위한 끈질긴 집념으로 통하는 것이었다. 그는 자기 인생의 모든 경험 내용을 자기 작품 창작에 이용하려고 하였고, 작품 창작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험은 단호히 피하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그가 대학의 전임강사직을 혐오하고 있었던 것은 교양 영어를 가르치는 일이 자기의 창작 활동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기 때문이었다.

또한 그가 자기의 오랫동안 情婦였던 Esther Jack와의 교제를 삼가하려고 한 것도 그의 문학적인 성실성에 기인하는 일이었다. 그녀가 속해 있는 화려한 상류 사회의 사교적 모임과 그 속의 허허허식은 문예창작을 통한 그의 진실 추구하고 공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Esther는 Webber의 마음을 다시 자기에게로 돌리기 위한 방편으로 성대한 연회를 개최하기로 작정한다. 만반의 준비를 갖춘 그 연회에서 자기의 뛰어난 미모와 사교적인 매력과 뉴욕 연예계에서의 자기의 인기를 과시함으로써 이 고집스러운 문학 청년의 마음 속에 자기의 존재를 새롭게 부각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그녀의 계산이었다. 그런데 Webber에게는 달갑지 않았던 이 연회 참석이 결과적으로는 두 사람 사이의 절교를 결심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 주었다. 그는 자기가 추구하는 고통스러운 문학세계의 본질을 재인식하고 자기의 안이했던 문학 수업 태도를 반성함과 동시에 연회 석상에서 연출되는 상류 사회의 허위성을 똑바로 직시하게 되었던 것이다. 연회 참석자들이 자기들과 무관한 사람의 사망 보도에는 가식적인 애도의 뜻을 표하다가 정작 자기들 일행 가운데서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나온 데 대해서는 무참하게 목살해 버렸다는 점, 사회의 상류 계층임을 자부하는 자들이 연회 도중의 씨커스 공연에 대해서는 몰취미한 감상 태도를 보여 주었다는 점, 연회 진행중에는 우아하고 세련된 매너를 보여 주다가도 화재와 같은 비상사태에 임해서는 무질서한 일대 수라장을 만들었다는 점 등, 상류사회의 적라라한 實相은 Esther가 속해 있는 사교계와의 관계를 끊으려는 Webber의 결심을 강력히 촉구해 주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Webber가 상류사회와의 절교와 아울러 Esther와의 애정을 단념한다는 것은 그 나름의 커다란 자기 혁신을 의미하는 일이었다. 그가 어린 시절 시골에서 고아로서의 외롭고 貧寒한 생활을 할 당시 선망의 대상이었던 것, 그리하여 그의 꿈이 실현되어 도달해야 할 목표지점으로 想定해 오던 것이 다름 아닌 이 날 밤 연회 주인공들인 상류층 사람들이었고 Esther는

그런 상류사회의 대표자와도 같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다. 어릴 적 꿈의 온상지였던 고향 마을 Ribya Hill 에 대하여 크게 실망하여 영원한 정신적 이별을 고해 버린 Webber 의 심경에서 볼 때, 오랫동안의 선망의 대상을 이제 겨우 손에 넣을 순간 그것을 포기해야 하는 그의 서글픈 허무감은 그 만큼 더욱 애절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인생의 진실과 고통을 외면한 상류사회의 특권의식을 배격하려는 Webber 는 나아가서 미국의 진실한 발전 가능성은 이러한 특권과의 타협을 파기하는 속에서 찾아 져야 한다고 보고, 미국인들의 국민적인 자부심은 바로 이러한 비타협적인 정직성에 기초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For he had learned tonight that love was not enough. There had to be a higher devotion than all the devotions of this fond imprisonment. There had to be a larger world than this glittering fragment of a world with all its wealth and privilege. Throughout his whole youth and early manhood, this very world of beauty, ease, and luxury, of power, glory, and security, had seemed the ultimate end of human ambition, the furthestmost limit to which the aspirations of any man could reach. But tonight, in a hundred separate moments of intense reality, it had revealed to him its very core. He had seen it naked, with its guard down. He had sensed how the hollow pyramid of a false social structure had been erected and sustained upon a base of common mankind's blood and sweat and agony. ... And it boiled down to this: honesty, sincerity, no compromise with truth — those were the essentials of any art — and a writer, no matter what else he had, was just a hack without them. ... In America, of all places, there could be no honest compromise with special privilege. Privilege and truth could not lie down together. ... There were stronger, deeper tides and currents running in America than any which these glamorous lives tonight had ever plumbed or even dreamed of. Those were the depths that he would like to sound. (p.p.298-9)

G. Webber 가 모든 종류의 특권의식을 혐오하는 것은 그것이 인생의 總合的인 受容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었다. 그가 미국의 발전 가능성에 대하여 커다란 기대를 걸고 있는 것도, 삶의 다양한 내용을 기꺼이 받아 들일 수 있는 미국 국민의 넓은 포용력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미국은 광대한 영토에 걸쳐 뻗어 있을 뿐 아니라, 원래 그 건국 초기에서부터 다양한 문화 배경을 가진 수 많은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견해서는 상호 모순되는 듯이 보이는 상이한 요소들을 동일 사회 속에 지니고 있는데, 이러한 대립적인 요소들을 더욱 고차적인 수준에서 조화 통일시킴으로써 보다 완전한 삶의 구현이 가능해 진다는 생각인 것이다. 8) 그

8) 그런데, 미국 역사가 안고 있던 대립적인 요소들간에는 화해와 통일보다는 분리와 갈등의 관계가 주된 흐름을 이루어 왔다는 것이 Richard Chase 의 주장이다. 그에 의하면 미국 사

리하여, 하는 일 없이 도시의 거리를 배회하는 부랑아들도 무엇인가 미래의 희망을 찾아 낙관적인 자기 세계의 건설을 꿈꾸고 있으며, 미국 국민성에 內在해 있는 야성미와 세련미, 순진성과 범죄성, 고독과 우애, 불안과 확신, 더러움과 깨끗함 등의 상반되는 요소들은 더욱 큰 발전을 위한 모태와 활력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It is also true — and this is a curious paradox about America — that these same men who stand upon the corner and wait around on Sunday afternoons for nothing are filled at the same time with an almost quenchless hope, an almost boundless optimism. ... This is a peculiar quality of the American soul, and it contributes largely to the strange enigma of our life, which is so incredibly mixed of harshness and tenderness, of innocence and of crime, of loneliness and of good fellowship, of nameless fear and of soaring conviction, of brutal ugliness and of beauty. (p.395)

미국의 開國 歷史와도 비슷하게, 과거와의 충격적인 단절을 경험한 Webber가 당면한 과제도 그 단절이 만들어 놓은 대립적인 요소들을 적절히 조화시키고 승화시키는 일이었다. 그의 성격 속에서 대립되는 것은 현재와 과거만이 아니라 시골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도시 사회에서의 야망, 상류 사회에의 동경과 평민적인 진실에의 애정, 성공에의 초조한 집념과 욕구불만, 세속적인 쾌락에의 욕망과 순수한 고독에의 향수, 끝없는 방랑벽과 정착의 즐거움 등이었는데, 그는 자기 내부에서 대립하는 이러한 요소들간의 단층을 더욱 큰 미래 창조의 바탕으로 삼으려는 진취적인 기상을 갖고 있었고 이것은 곧 미국적인 진보주의의 한 표현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그런데, 과거에 대한 자기 상실의 아픔을 더욱 큰 획득에의 희망으로 승화시키려는 노력에 있어서, Webber 개인의 경험과 미국 국민의 역사적 체험이 크게 상통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소설의 교묘한 伏線的 構造를 이루고 있다. 즉, Webber가 Esther에 대한 애정의 羈絆에 얽매어 기보다는 문예창작이라는 더욱 높은 가치 추구에 전념하기로 한 사실은 1929년의 미국 국민이 경제적인 일대 파탄을 경험함으로써 국가 번영에 대한 이제까지의 안이한 낙관주의를 반성하고 더욱 견고한 사회 건설의 계기로 삼는다면 사실과 並置관계(juxtaposition)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미국 경제 공황의 시발점인 株價 暴落을 일주일 앞두고서 Esther가 주최한 연회가 화재 사건 때문에 일대 봉변을 당했다는 사실은, 국민적인 자기혁신 과정이 Webber 개인

회와 미국 문학에 깔려 있는 대립적인 요소들은 신세계와 구세계,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개인의 상상력과 사회의 인습, 자연과 인공, 동부와 서부 등인데, 이것들은 선과 악, 明과 暗처럼 영원한 긴장 상태를 이루면서 미국적인 투쟁 드라마의 활력소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Richard Chase, *The American Novel and its Tradition*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0) p.p. 1~5.

의 그것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하겠다. Wolfe는 이러한 과거탈피적인 자기혁신의 아픔을 매미의 애벌레가 껍질을 벗으면서 成蟲으로 변신되어 가는 과정에 비유하면서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America, in the fall of 1929, was like a cicada. It had come to an end and a beginning. On October 24th, in New York, there was a sudden crash that was heard throughout the land. The dead and outworn husk of the America that had been had cracked and split right down the back, and the living, changing, suffering thing within — the real America — began now slowly to emerge. It came forth into the light of day, stunned, cramped, crippled by the bonds of its imprisonment, and for a long time it remained in a state of suspended animation, full of latent vitality, waiting patiently, for the next stage of its metamorphosis. ... George Webber was just as confused and fearful as everybody else. If anything, he was more so, because, in addition to the general crisis, he was caught in a personal one as well. For at this very time, he, too, had come to an end and a beginning. It was an end of love, a beginning of recognition. (p.p.302-4)

그런데, T. Wolfe에게 있어서, 단호히 탈피되어야 할 미국적인 과거 유산이 경제 파탄이라는 표면적인 사회 현상에 국한되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인간성과 사회구조에 內在하는 여러 가지 非理와 허위성을 예리하게 밝혀 내는 일은 이 소설의 곳곳에서 발견되는 T. Wolfe의 탁월한 통찰에서 나온 것이거니와, 주인공 Webber가 문제시하는 미국적인 병리라는 것도 미국 사회의 더욱 심층적인 곳에 있었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즉, 미국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미국인의 국민적 자부심의 근간을 이루는 자유 평등의 민주주의와 고결한 청교주의, 또는 근면하고 진취적인 개척정신 등이 그것의 일면에 있어서 실속없는 위선과 안이한 자기도취의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데에 잠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도 최악의 것은 知的인 부정직성이라고 진단하고, 미국 건국 이래로 소위 미국적인 꿈(American Dream)을 이루어 온 번영과 민주주의에의 부풀은 희망은 공허한 구호에 그칠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한다. 마치 상업주의적인 광고인들이 화려한 간판 뒤에 불량품을 숨기고 있는 것처럼, 미국적인 고결성과 기회 균등을 내세우면서도 미국의 사회적인 實相이 그것에 따르지 못함을 간파하고 있다는 것이다.

Suddenly we realize that America has turned into something ugly. ... And the worst of it is the intellectual dishonesty. ... We've become like a nation of advertising men, all hiding behind catch phrases like prosperity and rugged individualism and *the American way*. And the real things like freedom, and equal opportunity, and the integrity and worth of the individual — things that have belonged to the American dream since the beginning — they have become just words, too. The substance has gone out of them (p.361-2)

다음에는, Webber의 자기혁신적인 성격을 그의 문학 세계의 발전 과정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는 자기의 문학 수업의 초기 단계에 있어서는 극히 편협되고 폐쇄적인 小我主義에 얽매어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다. 자기가 대학 재학시에 가졌던 개인주의적이고 고립주의적인 문학 태도는 삶의 전체적인 내용을 포용할 수 없는 生命離脫的인 것이었다고 술회하고 있는 그는, 진실한 문학가는 총체적인 삶과 화합하여 그것을 사랑하고 긍정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지켜야한다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 the artist that we talked about so much, instead of being in union with life, was in perpetual conflict with it. Instead of belonging to the world he lived in, he was constantly in a state of flight from it. The world itself was like 'a beast of prey, and the artist, like some wounded faun, was forever trying to escape from it. ... It gave to young people who were deficient in the vital materials and experiences of life, and in the living contacts which the artist ought to have with life, the language and formulas of an unwholesome preciousness. ... each of us tended to think of himself as a person who was exempt from the human laws that govern other men, who was not subject to the same desires, the same feelings — who was, in short, a kind of beautiful disease in nature, like a pearl in an oyster. (p.p.651-2

그는 이와 같은 고백을 통해서 似以非 예술가들이 빠지기 쉬운 특권의식에 대하여 경종을 울려 주려는 것이었다. 보통 사람과는 다른 특수한 부류의 사람이라고 자처하는 가운데 구체적 현실적인 체험을 폭 넓게 수용하지 않고 자기들 사회에서만 통용되는 난해한 언어와 이론의 흡수에만 열중하는 것은 비겁한 현실 도피요 지적인 태만이기 때문이었다.

Webber의 혁신주의적인 성격을 克明하게 보여주는 것은, 출판사 편집인 Foxhall Edwards에게 보내는 그의 절교장이다. 그의 문학 활동에 큰 도움을 주었던 이 뛰어난 文學 後見人과 訣別하기로 결심하는 데에는 Webber가 독일 여행에서부터 당한 충격이 큰 작용을 하고 있다. 나치스 독일의 극악무도한 잔인성 속에서 인간성 속에 뿌리 깊이 內在하는 邪惡에의 충동을 발견한 그는 이런 잔인성을 과감하게 파기하는 일대 혁신운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되었고, 그러한 혁신운동은 개혁 부정론자인 Foxhall의 이념과 조화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Foxhall은 그 뛰어난 문학적 식견에도 불구하고, 인간 역사의 발전을 불신하고 사회에 대한 개혁의지를 부정하며 역사상의 모든 변화와 발전 노력에 초연하려는 극도의 운명론자인데 반하여, Webber는 인간 역사가 존엄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부단한 개혁에의 정열이 요구된다고 보았다. 어느 한 종류의 죄악을 몰아내는 순간 또 다른 종류의 죄악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역사에서 개혁과 발전은 허망한 것이라고 체념해 버리는 Foxhall의 소극적 태도에 대해 Webber는 공감할 수가 없었다. Webber의 절교장 가운데 다음 대목은 이들 두 사람의 역사 의식의 차이점을 아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Your own philosophy has led you to accept the order of things as they are because you have no hope of changing them; and if you could change them, you feel that any other order would be just as bad. In everlasting terms — those of eternity — you and the Preacher may be right: for there is no greater wisdom than the wisdom of Ecclesiastes, no acceptance finally so true as the stern fatalism of the rock. ... Mankind was fashioned for eternity, but Man-Alive was fashioned for a day. New evils will come after him, but it is with the present evils that he is now concerned. And the essence of all faith is that man's life can be, and will be, better, that man's greatest enemies — the forms we see on every hand of fear, hatred, slavery, cruelty, poverty, and need — can be conquered. They cannot be conquered by the sorrowful acquiescence of resigned fatality, by the philosophy of acceptance. ... Just as you are the rock of life, I am the web; just as you are Time's granite, so am I a Time's plant. My life has taken on the form of growth. (p.p.665-7)

이 소설의 末尾를 이루면서 동시에 Foxhall에게 보내는 절교 서한의 末尾를 이루고 있는 다음과 같은 표현은 Webber의 미래지향적인 과거 탈피의 신념을 비장한 언어로 선언하고 있다.⁹⁾ 살아 있다는 것은 곧 무한한 탈피의 연속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아끼고 사랑하던 것을 포기하는 것도 결국은 미래에 더욱 값진 것을 얻기 위함이라는 이 처절할 정도의 발언은, R.Spiller의 말을 빌리자면, Wolfe가 자기의 죽음을 예감하고서 자기 생애의 종말에 대하여 미국 역사에 대한 헌신적인 歸依라는 의미 부여를 하려는 심정에서 나왔을지도 모른다.¹⁰⁾ Wolfe는 이 마지막 작품을 채 발표하지도 못한 채 폐염으로 요절함으로써 그의 정열적인 자기확대의 일생에 막을 내렸기 때문이다.

Something has spoken to me in the night, burning the tapers of the waning year, and told me I shall die, I know not where. Saying: To lose the earth you know, for greater knowing; to lose the life you have, for greater life; to leave the friends you loved, for greater loving; to find a land more kind than home, more large than earth. Whereon the pillars of this earth are founded, toward which the conscience of the world is tending. (p.671)

9) 史學者 Carl N. Degler는 前掲書에서 다음과 같이 미국인의 미래지향적인 진보주의를 설명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 改革者가 된다는 바로 그 행위는 그 사람의 世界觀의 일부를 반영하는 것이다. 改革을 목적으로 노력한다는 것은 비록 작은 분야에서나마 세계를 改造하는 일이 유익하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인들에게 있어서 未來는 항상 현재보다 좋은 것으로 생각되었다.」(p. 177)

10) Robert E. Spiller, *The Cycle of American Literature* (New York: The Free Press, 1967) p.200.

Ⅲ. 結 論 : 發展에의 意志와 安定에의 鄉愁

미국인들이 역사상 위대한 문명을 창조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풍요한 자연 환경뿐만 아니라 강렬한 정신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며, 그러한 정신력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과감한 과거탈피와 끊임없는 현실 개혁에의 의지에서 크게 기인했던 것이라고 보는 것이 본 論考의 입장이다. Wolfe의 소설 *You Can't Go Home Again*의 주인공 Webber에게서도 그 단적인 예를 볼 수 있었지만, 그들의 특성인 진취적인 성향은 부단한 자기혁신과 자기확대에의 집념으로 통하는 것이었다. 그들에게 있어서 과거의 부정은 미래의 긍정 속에서 승화되는 것이었기에 부정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고, 정신의 歸屬地로서의 고향은 미래 창조의 밑거름이 되어야 했으므로 특정의 어느 좁은 지역에 국한될 수는 없는 것이었다. 미국인의 주요한 특성을 이와 같이 非定着的이고 力動的인 變化指向性으로 이해했을 때에 우리는 미국 문화의 주요한 특색들, 즉 이질적인 것에 대한 관용, 개성적인 것에 대한 존중, 역경 속의 성취에 대한 낙관적인 자부심, 11) 새로운 분야의 정력적인 개혁에 대한 장려 풍토 등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그러나 미국인들의 이와 같은 변화지향성은 그것대로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고 문화창조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고정불변의 권위를 부정해야 한다는 이러한 가치 상대주의나 발전 제일주의가 오히려 인간 존엄성을 해치고 불필요한 방황과 불안감을 자아낼 수가 있는 것이다. 인간적인 자유의 확대나 발전이라는 美名아래 모든 기성의 권위 (고향까지도 포함하여) 를 불신하는 가운데에 인간성의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어떤 심층 부분까지도 무시할 수가 있고 무의미한 혼란과 徒勞가 우리를 당혹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기확대의 노력 속에서 젊음을 불태우는 Webber가 언제든지 발전과 성취의 기쁨으로만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끝없는 발전 욕구에 대하여 조심스러운 회의를 던져 볼 때도 있었다는 사실은 그의 성격 구조의 폭을 다시금 생각해 해 준다. 그리하여, 기차 여행 중에 차창밖으로 보이는 창고지기가 하는 일 없이 멍하니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의 情婦인 Esther가 조롱하는 태도밖에 취하지 못 한데 반하여, Webber는 그 무표정한 사람의 얼굴에서부터 자신의 삶

11) Carl N. Degler는 미국인들의 낙관주의적인 성취지향성에 대해서 前掲書 속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오늘날의 위태로운 세계에서는 거의 연속적으로 위기가 일어나고 있지만, 미국인들은 옛날의 그 樂觀主義, 즉 보다 나은 未來에 대한 信念을 결코 잃지 않고 있는 것이다」(p.179)

의 고달픈 歷程에 대한 정겨운 위로의 뜻을 찾아내려 했다는 것이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이다. 술한 방황과 실패를 겪어 온 그가 불 때에, 창가에 앉은 그 사내의 無念無想한 얼굴은 마치 그가 겪어 온 고통스러운 과거를 알고 있고, 인류가 거쳐 온 徒勞와 狂氣의 역사를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열병과도 같은 사랑의 신비, 굶힐 줄 모르는 성공에의 집념, 그리고 여기에서 비롯되는 온갖 갈등과 번민의 내용을 창가의 그 얼굴이 모두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은, 작가로서의 Webber가 인생을 살아가는 행동력 뿐만 아니라 인생을 관조하는 상상력도 갖추고 있음을 말해 준다 하겠다.

“Child, child,” it [that man’s face] said, “have patience and belief, for life is many days, and each present hour will pass away. Son, son, you have been mad and drunken, furious and wild, filled with hatred and despair, and all the dark confusions of the soul — but so have we. ... You have stumbled on in darkness, you have been pulled in opposite directions, you have faltered, you have missed the way — but, child, this is the chronicle of the earth. And now, because you have known madness and despair, we who have stormed the ramparts of the furious earth and savored all of life, the tumult, pain, and frenzy, and now sit quietly by our windows — we call upon you to take heart, for we can swear to you that these things pass. ... our wandering is over, and our hunger fed. O brother, son, and comrade, because we have lived so long and seen so much, we are content to make our own a few things now, letting millions pass.” (p.59)

Webber는 이 순간에 있어서는, 삶의 의미의 전부가 오직 변화와 발전 속에만 존재할 것인가 하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인간 역사의 수다한 변혁을 넘어서서 영구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삶의 의미를 찾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變化無常한 역사 속에서 不變하는 영원성을 찾아 보려 하고, 生成과 발전의 어지러운 소리들 가운데에서 정지와 침묵의 의미를 조용히 음미해 보고 싶고, 끊임 없는 긴장 속에서도 한 가닥 화평의 실마리를 그리워하고 있다 하겠다.

“Some things will never change. Some things will always be the same. Lean down your ear upon the earth, and listen. The voice of forest water in the night, a woman’s laughter in the dark, ... the delicate web of children’s voices in bright air — these things will never change. ... All things belonging to the earth will never change — the leaf, the blade, the flower, the wind that cries and sleeps and wakes again ... and the dust of lovers long since buried in the earth.” (p.p.59-60)

그리하여, Wolfe에게 있어서의 번민과 방황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찾는 데에서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것에 대한 갈망과 불변하는 것에 대한 그리움 사이에서 갈등하는 데에서도 기인하

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건국 이래의 미국인들이, 그들의 시급한 당면 과제였던 번영과 성장의 와중에서 오직 변화의 의미를 추구하는 데에만 열중하였으나, 이제 어느 정도의 발전을 이룩한 그들에게 있어서 불변하는 어떤 가치에 歸依하려고 시도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되고, 그러한 不變의 가치를 모색하는 일이 미국 문학의 하나의 과제라고도 생각되는 것이다.

Abstract**The American Character as seen in T.Wolfe's *You Can't Go Home Again*.**

Yung-soo Yang

T.Wolfe tried to embody American spirit in his last novel, *You Can't Go Home Again*, and George Webber, the hero of it, was the other self of T.Wolfe. G.Webber is showing many of American characteristics. As American people were so brave as to give up the time-honored European establishments, so G.Webber had the courage to sever himself from his homeland and the people there by disclosing the dehumanizing phenomena arising from the economic boom of his long-cherished homeland. Both made efforts to outgrow their past selves, hoping to enjoy richer life in the future.

G.Webber's self-enlarging character gets rooted in the attitude that all things on the earth are destined to change and men can adapt themselves to the changes only by incessant renovations of themselves. And so, Webber could quit his beloved Esther with equanimity, now that he came to realize that she belonged to the high circles which tend to overlook the painful reality of human being and society.

His fondness for traveling also has its origin in his self-renewing endeavour, and his experiences in Germany under the rule of the Nazis brought to him the deep-rooted cruelty in the human mind.

Consequently, he resolved to stop his friendship with his editor, Foxhall, because the philosophical resignation of the latter could not be in harmony with his determined progressiveness. He believed in historical progress, while the hard-minded fatalist thought that human nature and inclination to crime cannot be changed in spite of everlasting reformation.

This separation also shows that Webber is willing to renounce his familiar possessions in hoping for richer and better ones.